

“동물등록 자진신고 적극 참여해 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전북도,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내 신고시 미등록·신고 지연 따른 과태료 면제

전북도가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반려견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도는 동물등록 참여와 반려동물 정보 현황화를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기간내 신고시 미등록 및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은 한 달 남은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

물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5일 문화대공원, 기지재, 신성공원, 12일에는 세병공원, 용호근린공원, 잔북 우성아파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날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으면 1만 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완주군은 지난 8월 13일 2021년 농식품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9월 한 달간 완

주군 이서면 내 반려견 300마리를 무료로 등록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 등록견은 입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

물과의 동행, 그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다”며 “자진신고 기간내 꼭 등록하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패턴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내 등록된 2,840마리를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총 6,876마리 동물이 등록됐다.

이는 작년에 등록된 6,843마리를 넘어선 수치로, 이 추세라면 올해 말 1만 마리 이상이 등록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자연재해 발생 재산피해 보상... 보험료 70% 이상 지원

전북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도는 2일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도민들에게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주택은 2,200원, 온실은 39만1,500원, 상가·공장은 2만6,8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에 더해 각 시·군 별도의 자체 추가지원을 더하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등 재해 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과

같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재해취약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7~92%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하거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양민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늦은 가을 장마가 내리는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태풍이 오기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은 주택의 경우 평균 867만4,000원(24건), 온실 608만7,000원(78건), 상가·공장 86만8,000원(1건)의 보험금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대농갱이 종자 2만 마리 방류

전북도가 하천개발과 환경변화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대농갱이’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종자 2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대농갱이 자원량 증대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안군 금강’, ‘무주군 남대천’ 2개 하천에 자체 생산한 대농갱이 종자 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일 밝혔다.

방류한 대농갱이 종자는 자연산 어미를 구입해 성숙 유도 호르몬 주사 후 산란유도 및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확보, 약 50일간 사육관리를 통해 전장 5cm이상 성장한 우량 종자다.

방류 3년 후 전장 15~30cm까지 성장해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농갱이’는 동자개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서해로 유입되는 임진강, 한강, 금강에서 주로 어획된다.

하천의 물 흐름이 완만하고, 진흙이나 모래로 이뤄진 곳에서 활동한다.

또한, 대농갱이는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대농갱이로 탕을 끓이면 국물 맛이 개운해 요리에 얹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대농갱이 방류를 추진했으며, 지난해까지 8만2천마리를 무상 방류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서울장학숙 청운관, 인재육성 산실 자리매김

공인회계사 시험 5명 합격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숙 청운관(관장 정종복)에서 올해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5명을 배출했다.

전북도는 우면산 아래 서울 속 작은 전북도 서울장학숙 청운관에서 이민영(장수군, 영생고), 오대권(정읍시, 배영고), 강동재(전주시, 상산고), 이보람(고창군, 고창영고), 김운호(전주시, 전일고) 학생이 2021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합격자들은 “청운관 교시원의 다

양한 혜택과 선배들의 지원,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합격에 큰 힘이 됐다”며 전북도와 도민의 수혜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북도서울장학숙(1992년 개관)과 청운관(2005년 개관)은 현재까지 241명의 국가고시 및 전문가격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전북도 인재육성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6명의 청운관 출신 입사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하반기에 추가로 5급 공채 2차 합격자 발표가 10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며, 청운관 입사생 21명(5

급 공채 16명, 5급 공채 기술직 4명, 외교관 후보자 1명)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도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은 “입사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듣고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해 전북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겠다”며 “국가고시, 회계사, 변호사 등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은 2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비대면 포럼 개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2일 경력단절여성들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전주시)됨에 따라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 도내 여성친화기업 및 예비기업, 여성기관·단체, 일자리 유관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오는 7일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맞아 여성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모색과 코로나19 시대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도입 등 여성의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점검하는데 그 의미를 더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남주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하위권에 있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평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제도 영역에서의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직장문화개선사업, 기업 모부성 제도(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공백 지원 등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적극 확대하는 경력유지방안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유미 본부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일·생활균형을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

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향후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업 내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질 만큼 전라북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일·생활균형지원제도를 적극 홍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센터가 추진 중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희 기자

전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협력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와 문화통신사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란 도내 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봉사자에게 전북도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전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는 도 및 시·군 조례 개정 및 협약을 맺은 공공시설 53개소, 합인가맹점 190여개소, 문화·예술 플랫폼에서 입장료(사용료), 물품 구매 및 입장료 할인 및 마일리지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조합은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축제 및 공연 입장료, 참가자들의 물품 구입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센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14개 시·군 센터와 함께 시스템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10월중 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오픈 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 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